

2) 외래 사족의 입향

조선 초기의 활발했던 인구 이동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많은 인구층이 순천지역을 입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남겨진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의 대부분은 당시의 기록보다는 후대에 그들의 후손들이 작성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당대에 문집 등의 형식으로 행적을 남긴 자들이 있더라도 그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려면 마찬가지로 그들 후손의 보존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조선 후기 이후 지금까지 순천에서 유력한 세력으로 인정된 성씨들은 10여 개로 대부분이 이상과 같은 기록물을 남긴 집단들이다. 이들의 선조들은 일시적으로 머물다 간 지방관들과 달리 세거를 목적으로 타지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온 자들이며, 그 후손들은 대대로 이곳에 살면서 그들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씨족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 입향조 및 선대들의 행적은 그 후손들이 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림활동, 또는 전반적인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실제 이상으로 이 기록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들의 입향은 대략 15세기 초에서 17세기 초까지 2세기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를 성씨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초에 옥천(玉川) 조씨(趙氏) 입향, 1498년 무오사화 이후 고령(高靈) 신씨(申氏) 입향,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양천(陽川) 허씨(許氏) 입향, 16세기 초에 목천(木川) 장씨(張氏), 경주(慶州) 정씨(鄭氏), 상주(尙州) 박씨(朴氏) 입향, 16세기 중반에 성주(星州) 배씨(裴氏)·양성(陽城) 이씨(李氏) 입향, 16세기 후반에 광산(光山) 이씨(李氏) 입향, 17세기 초에 제주(濟州) 양씨(梁氏) 입향 등이다.

① 옥천 조씨

『옥천조씨충효록(玉川趙氏忠孝錄)』(1844)에는 옥천 조씨들의 입향내력과 행적이 실려 있다. 이들의 순천 입향조는 조유(趙瑜)이며, 그의 아버지는 농은(農隱) 조원길(趙元吉)이다. 조원길은 옥천군(玉川君) 전(佺)의 아들로 1369년에 등과(登科)하여 관이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에 이르렀다고 하며, 말년에 전라도 순창(淳昌)에 내려와 은거하여 목은(牧隱)·포은(圃隱)·도은(陶隱)·야은(冶隱)의 사은(四隱)과 함께 오은(五隱)으로 칭해졌다고 한다. 『農隱公事實』 그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 유가 순천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순창에 그대로 거하였다. 조유는 고려 때 부정(副正)을 지냈으며 자는 유옥(兪玉), 호는 건곡(虔谷)이다. 간혹 그의 호를 처곡(處谷)으로 잘못 기재한 책들이 있다. 그의 호는 그가 살았던 순창의 건곡(乾谷)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건곡은 고려가 망한 후 그가 관직을 버리고 은거한 곳이다. 그는 말년에 순천 부유촌(富有村)으로 이거하여 생을 마쳤다. 그의 아버지가 순창으로 이거한 때가 14세기 중반경이고, 그가 순창을 떠나 순천에 온 것이 15세기 초이다. 그가 부상(父喪)을 당하여 3년간 여묘살이를 하였다는 기록이나,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남쪽의 절의는 오직 이 한 분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찍이 성리학을 받아들여 실천한 자임을 잘 나타낸 것이다. 『虔谷公事實』 그의 아들은 넷으로 사문(斯文)·숭문(崇文)·극인(克仁)·흥인(興仁) 등이다.

조숭문(趙崇文)은 유의 차남이며 성삼문의 고모부(姑母父)이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이 병사(兵使)에 이르렀고 1455년에 단종복위를 꾀하다가, 이듬해 사육신 및 아들 철산(哲山)과 함께 화를 입었다. 1779년에 은전을 입어 정표(旌表)가 세워졌고, 순천 검천서원에 제

향되었다. 1779년에는 태학(太學)의 생도들과 남도지방의 많은 선비들이 통문을 내어 순천의 겸천서원(謙川書院)에 배향(配享)하였다.¹⁾ 승문은 1799년에 병조판서를, 아들 철산은 동몽교관(童蒙教官)을 각각 증직받았다.(「竹村公事實」)

1) 겸천서원은 公의 考 副正公 유를 향사하던 곳인데, 후에 金宗瑞·朴仲林·朴彭年을 并享하였다. 모두가 貫鄉之所, 즉 본관이 순천으로 公과 함께 화를 입은 인연 때문이다.

성삼문과 조숭문 부자의 관계

철산의 아들 경(瓊)은 이때 나이가 어려 죽음을 면하고 행주(幸州)에 유배된 후 관유(寬宥)의 은전을 입어 고향으로 돌아와 두문(杜門)하고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1569년에 육신(六臣)의 후예에게 녹을 줄 때 숭문의 현손(玄孫), 즉 고손(高孫)인 개(愷)와 그 종제(從弟)인 신(信)·윤(倫) 등이 참봉벼슬을 얻었다.

『옥천조씨세보(玉川趙氏世譜)』(19책, 1923)를 참조하여 이들의 세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충헌공파(忠獻公派) 중 상호정첨추공파(相好亭僉樞公派)의 파시조 7세 지산(智山)은 무과 출신이며,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정자를 짓고 3명의 아우와 상호지의(相互之義)를 가졌다고 하여 정자의 이름을 상호정(相好亭)이라고 하였다. 찰방공파(察訪公派)의 파시조 7세 지윤(智崙 : 1436~1503)은 제릉참봉(齊陵參奉)을 지냈으며 12세 경(暲)은 기옹(畸翁) 정홍명(鄭弘溟), 한림(翰林) 오희도(吳希道),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과 지기(知己)의 사이로 임진왜란 때 함께 거의(舉義)하였다. 13세 시술(時述 : 1608~1642)의 자는 학이(學而) 호는 월천(月

옥천 조씨 세계도

川)으로 일찍이 정홍명 문하에서 배웠다. 163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6년 병자호란 때 종족을 규합(糾合)하여 의거하였다.

찰방공파 10세 대성(大成 : 1520~1566)의 자는 성지(成之), 호는 매창(梅窓)이다. 일재(一齋) 이항(李恒 : 1499~1576, 태인 거주), 정소(鄭沼)와 학문적 교유를 하였다. 부유에 우거하였고, 후에 묘갈명(墓碣名)은 송병선(宋秉璿)이 찬(撰)하고 송병순(宋秉珣)이 서(書)했다.

상호정과의 조침(趙琛)은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냈다. 부유의 조씨 성은 대부분 그의 후손이다. 침의 손자 조기(趙琦)는 무과로 관이 부총관(副總管)에 이르렀다.

② 고령 신씨

고령 신씨는 1498년 무오사화 이후 입향하였다. 이들은 순천 읍내와 쌍암면(현 승주읍), 해룡면 등에 퍼졌다. 이들의 입향조는 목사(牧使) 신윤보(申潤輔)이다. 그의 자는 비경(斐卿)이고, 고령군(高靈君) 성용(成用)의 후예로 순은공(醇隱公) 덕인(德隣)의 5세손이다. 성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관은 목사에 이르렀다. 『항남악부』에는 무오사화 때 위기를 당해 서울에서 이곳 도사면 흥안동에 퇴거하여 동천(東川) 광진강(廣津江) 위에 정자를 짓고 포구에 송(松)·매(梅)·도(桃)·유(柚)·죽(竹) 5종의 나무를 심어 오림(五林)이라고 호를 지어 자손들을 훈교(訓敎)하였다고 한다. 그의 아들 참봉 식(湜)은 학행(學行)으로, 손자 진사 언호(彦浩 : 자는 景浩)는 임진왜란 중에도 선친제사를 계속하는 등의 효행으로 이름났다. 오림정은 부 남쪽 1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목사 신윤보가 거하던 곳이다. 후손 신철휴(申喆休)·신영식(申暎植)·신학휴(申學休) 등이 기미년에 중건하였다.

③ 양천 허씨

양천 허씨는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이곳에 입향하였다. 양천 허씨는 1세 선문(宣文)을 시조로 한다. 10세 문경공(文敬公) 공(珙)은 첨의중찬태학사(僉議中贊太學士)로 충렬왕묘에 배향된 인물이다. 『한성대동보(萬姓大同譜)』에 따르면 그는 문과 출신으로 첨의중찬태학사를 지내고 문경(文敬)의 시호를 얻었으며 충렬왕묘에 배향되었다. 11세 대제학 부(富)는 선부전서(選部典書)이며, 그의 6자는 정당공(政堂公) 완(完)이다. 15세는 호군공(護軍公) 온(溫)이다. 그의 두 아들은 형(亨)과 영(瑛)인데, 이 형제가 자식을 거느리고 순천에 입향하였다.

16세 형(1489~1564)의 자는 통지(通之)이고, 호는 여촌(汝村)·세수재(世守齋)이다. 후에 증손 일(鎰)의 공으로 승정원좌부승지로 추증되었다. 경교외(京郊外) 연동(蓮洞)에 거주하다가 연산정란으로 동생 비인현감 영과 함께 순천 옥계리로 와서 이곳 허씨들의 입향조가 된다. 묘는 순천 해룡면 갈치(葛峙) 재궁동(齋宮洞)에 있다. 형의 아우 영의 자는 가패(可佩)로 1492년생이며, 문과에 합격하고 비인현감을 지냈고 묘는 광주(廣州)에 있다. 17세 희린(希麟)의 자는 언서(彦瑞), 호는 묵헌(默軒)으로 1512년에 태어났다. 손자 일의 공으로 승정원좌승지에 추증되었고, 묘는 갈치 재궁동에 있다. 17세 희인(希仁)의 호는 반구정(伴鷗亭)이고, 1516년에 태어나 1572년에 죽었다. 구암 이정이 행장을 찬(撰)했다.

④ 목천 장씨

목천 장씨는 16세기 초에 입향했다. 입향조 장자강(張自綱 : 1461~1526)의 자는 가거(可舉)이고, 목천군(木川君) 장빈(張彬)의 후예로 진주에서 이곳으로 와 성균관 생원으로 본읍의 교수관(教授官)을 지내면서 후학 장려와 학문진흥에 힘썼다. 조위(曹偉) 등과 함께 진솔회(眞率會) 활동을 하였다. 본처 진양(晉陽) 강씨(姜氏)의 묘는 진주에, 재취(再娶) 해주(海州) 오씨(吳氏 : 1488~1566)의 묘는 승주읍 보광동(寶光洞)에 있어 진주에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목천장씨족보』, 1900)

⑤ 경주 정씨

경주 정씨는 목천 장씨와 비슷한 시기에 입향하였다. 이들은 1450년대에 남원으로 와서 16세기 초에 순천으로 옮겼다. 남원입향자는 정지년(鄭知年), 순천입향자는 정내(鄭籟)이다. 정지년의 자는 유영(有永), 호는 노송정(老松亭)이다. 1438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하위지·성삼문 등과 교유하였으며 성균관사예(司藝)·삼사(三司) 등을 거쳤다.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이 있자 관직을 버리고 남원으로 낙향하였다. 계림군에 봉해졌고 묘는 남원 북송현(北松峴)에 있다.

정내(1491~1538)의 자는 조수(調叟)로 계림군 지년의 증손이며 이조참의 효종(孝終)의 손자이다. 남원에서 출생하였고 이곳에서 우거(寓居)하였다. '사친지효(事親至孝)'의 행실로 그 집을 '효자지문(孝子之門)'으로 일컬었다고 한다.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이 그의 묘지(墓誌)를 지었다. (황남악부, 「효자문」)

정승복(鄭承復)은 정지년의 현손으로 삼중대광검교첨의평리정승(三重大匡檢校僉議評理政丞) 극중(克中)의 아들이다. 자는 경운(景胤), 호는 옥계(玉溪)이며, 1544년에 별시 을과에 장원으로 급제했고, 1546년에는 중시 양과에 장원급제하였다. 1552년에 옥구현감(沃溝縣監)을 지내고 을사사화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순천 옥천동에 퇴거하여 스스로 장계거사(長溪居士)라 칭하고 산수를 벗삼아 학문을 닦았다. 만년에 옥천변에 정자를 짓고 호를 옥계라 하였다.

내와 승복의 묘가 해룡면 명말산(楡末山)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들 때에 순천에 입향한 것이 확인된다.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이 시로써 그를 칭송하였다.²⁾ 임억령은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났으며, 박상(朴祥: 1474~1530)의 문인으로 을사사화와 관련되어 화를 입은 자이다. 옥계정(玉溪亭)은 성 남쪽 옥천변에 위치하는데, 이곳이 읍인 정승복이 거하던 곳이다. 아들은 사요(思要)·사익(思翊)·사준(思竣)·사횡(思竑)·사정(思靖)·사립(思立) 등이 있다.

⑥ 상주 박씨

상주 박씨도 16세기 초에 입향하였다. 『허수씨족보(麗水氏族譜)』(1952)에 따르면 기묘사화(1519)가 일어날 즈음 입향조인 생원 박증손(朴曾孫)이 순천 황전면(黃田面)으로 와서 둔거(遁居)하였다고 한다. 자손이 이후 이곳에 세거하였다. 묘는 상사면 자경동의 운곡산에 있다.

⑦ 성주 배씨

16세기 중반에는 성주 배씨가 입향하였다. 입향조 배숙(裴壽)은 1564년에 이곳의 교수관이 되어 매곡으로 이거하였다. 1566년에는 해룡면 향리로 내려와 복거(卜居)하고 수칸의 정사(精舍)를 짓고 정원에 매화를 심어, 스스로 호를 매곡(梅谷)이라 하였다. 청사(菁莎) 정소(鄭沼), 강호(江湖) 허엄(許淹), 포당(圃堂) 정사익(鄭思翊) 등과 당 위에서 소요하고 도학을 강구하였다. 성(誠)·정(正)·수(修)·제(齊) 4개의 명(銘)을 만들어 자리 옆에 붙이고 태극도 설을 짓는 등 성리학적인 세계관과 그 이치를 강구하였다. 묘는 해룡면 미등산(美登山)에 있다.

『성주배씨세보(星州裴氏世譜)』 정사보(丁巳譜)에는 이들과 다른 파로 배위준(裴位俊)을 시조로 하는 10세 온(蘊: 자 士玉, 호 靑山)이 성주에서 영동(永同)으로 옮기고 그의 현손인 14세 배천령(裴千齡)이 영동에서 이곳 순천으로 이주하였다. 이들과는 다른 파로 장산재(長山

2) 임억령, 「순천정만호정승복」, 『石川詩』 권6.

齋)를 건립한 배기옥(裴淇玉)의 입향사실도 전해지고 있다.

⑧ 양성 이씨

양성 이씨는 16세기 중반경에 입향하였다. 이들은 양성군(陽城君) 수광(秀匡)의 후손들로 정절공(靖節公) 옥(沃)은 조선 초에 무지중개유(武知中開留)의 벼슬을 하였다. 참봉 전(筭)은 옥의 5세손인데, 명종 때 효자라는 소문이 나서 참봉벼슬을 얻은 자이다. 1569년에 광주(廣州)에서 이곳으로 와 이곳 양성 이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⑨ 광산 이씨

광산 이씨는 16세기 후반에 입향하였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유일조(遺逸條)에 따르면 이곳에 입향한 이천근(李千根)의 자는 호원(浩源), 호는 월오(月梧)로 잠심당(潛心堂) 조원(調元)의 증손이다. 경사(經史)에 밝았다고 한다. 1589년 기축화(己丑禍)를 만난 후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이곳에 월오재(月梧齋)를 짓고 효우학행(孝友學行)하였다. 같은 책 유행조(儒行條)에는 첨정(僉正) 기운(奇胤)의 손자로 경사를 두루 섭렵하고 문장이 향린에서 유명했다는 이정서(李廷瑞)에 대해 나와 있다.

⑩ 제주 양씨

17세기 초에는 제주 양씨가 입향하였다. 이들의 선조 양팽손(梁彭孫 : 1480~1545)의 자는 대춘(大春), 호는 학포(學圃)로, 이하(以何)의 아들이다. 13세부터 송흠(宋欽)에게 수학하였으며, 151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에 식년문과 갑과로 급제하였다. 시간원정언을 거쳐 조광조와 더불어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519년에 홍문관교리를 지냈으나 기묘사화로 관직이 삭탈되고 능주로 귀향갔다.(『허수씨족보』)

양신용(梁信容 : 1573~1645)의 자는 경중(景仲), 호는 장춘(長春)으로 학포 양팽손의 증손이다. 무과 급제하였고, 인동부사(仁同府使)·경주영장(慶州營將)을 지냈다. 중도에 피세(避世)하여 1618년에 순천 용두면(龍頭面 : 현 해룡면) 사포촌(沙浦村)으로 이거하였다가 1623년에 다시 출사하였다. 노병(老病)으로 집에 있다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재종제(再從弟) 만용(曼容)의 창의를 돕고 군자를 지급하였다. 1637년 이후 세상에 뜻을 버리고 앵무산정(鸚鵡山頂)에 재(齋)를 세우고 노년을 마쳤다. 호를 망성암(望聖菴)이라고 하였다. 묘는 율촌(栗村)에 있다. 양성 이씨 선전관 의남(義男)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제주 양씨 세계도

성씨별 입향상황

성 씨	입향시기	입향조	입향동기	입향이전지
옥천 조씨	15세기 초	조 유	만년에 이거	전라북도 순창
고령 신씨	1498년	신윤보	사화로 피화	서울
양천 허씨	1504년	허형, 허영	사화로 피화	서울 교외 연동
목천 장씨	16세기 초	장자강	교수관으로 부임	경상남도 진주
경주 정씨	16세기 초	정내, 정승복	사화로 피화	전북 남원, 서울
상주 박씨	16세기 초	박중손	사화로 피화	서울
성주 배씨	1564년	배숙, 천령, 기옥	교수관으로 부임	서울, 진주, 영동
양성 이씨	16세기 중반	이 전	미 상	경기도 광주
광산 이씨	16세기 후반	이천근	기축화로 피화	미 상
제주 양씨	17세기 초	양신용	미 상	미 상

이상과 같이 순천의 몇몇 대표적 성씨들의 입향시기와 동기, 입향 전의 거주지 등을 알아본 결과 이들의 입향은 15세기 초에서 17세기 초까지 약 2세기에 이르는 동안 진행되었고, 사족들로서 교수관으로 부임한 두 경우 말고는 대부분이 사화를 피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또 대부분이 중앙에서 관직생활을 지낸 후 이곳으로 낙향하여 자신의 본중에서 분파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후 이 지역에서 주된 사람세력으로 자리하였다.